

성화보 시족보화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선언의 발전적 현상



2025년1월호 안동권씨가사를 족보 박물관 족보 자료 전시관에 패러디 삽입하여 만든 그림이다. 이제 성화보의 특성은 그 4대 특질 남녀 평등, 타성 70% 등 조선초 성씨의 종합판이다.

2026년 7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족보 백서’ 편찬보고 및 학술심포지엄은 한국 족보문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역사적인 행사였다. 이날 발표된 백서 편찬계획은 한국 족보를 단순한 문종의 계보 기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록문화유산이자 인류 공동의 기록유산으로 재조명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출발을 선언하였다.

안동권씨대종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선언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한국 최초의 족보로 평가받는 ‘성화보(成化譜)’가 바로 한국 족보문화의 출발점이며, 오늘날 논의되는 한국족보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역사적 원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동권씨대종보는 이미 2025년부터 “성화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당시 종보는 “성화보”를 단순한 안동권씨 문종의 족보가 아니라 한국 기록문화의 출발점이자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할 기록문화유산으로 평가하였다. “성화보”는 조선 초기 사회와 정치, 공

동체 문화를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일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계보문화와 가족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24년 겨울 작은 연구 메모에서 시작되었다. ‘성화보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짧은 구상은 이후 기사와 연구를 거쳐 안동권씨 종문과 학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마침내 한국족보 전체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발전시키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번 백서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개별 족보’ 중심에서 ‘한국족보 전체’ 중심으로 시야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수만 권 족보를 하나의 거대한 기록군(Record Group)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등재 논리가 제시되었다. 이는 600년 이상 축적된 민간 기록문화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기록체계로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이며, 한국 족보문화의 세계사적 가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논리적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성화보”의 가치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화보”는 한국 족보라는 거대한 숲의 뿌리이자 씨앗으로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숲 전체가 살아가듯, 한국 최초의 족보인 “성화보”는 한국족보 기록문화의 기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이며, 전체 기록군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입증하는 상징적 기록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성화보”의 디지털 보존을 넘어 AI 기반의 ‘성화보 AI족보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AI족보화란 단순히 족보를 스캔하여 전산화하는 수준이 아니다. 원문을 고해상도로 보존하고, 한문을 자동 판독하며, 인명·관직·혼인관계·지역 정보를 구조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후손들이 자연어로 검색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차세대 기록문화 사업이다.

특히 AI 기술은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방대한 족보

를 상호 연결하여 인물 관계를 분석하고, 시대별 이동과 혼인, 지역 분포, 사회 변화를 입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성화보”를 정적인 고문헌에서 살아 움직이는 디지털 기록유산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족보 백서에서도 전국 족보 조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록문화사 편찬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AI 기반 족보 구축과도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중요한 학술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권씨대종보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첫째, “성화보” 원본의 보존과 학술연구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 둘째, AI 기반 디지털 족보 구축을 선도하여 후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록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내외 학계와 협력하여 “성화보”의 세계사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넷

째, 한국족보 전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성화보”가 한국 기록문화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제 시대는 문종 중심의 족보에서 국가 기록문화로, 종이 족보에서 AI 기반 디지털 기록으로, 국내 문화유산에서 인류 공동의 기록유산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최초의 족보인 “성화보”가 있다.

“성화보”의 AI족보화는 과거를 미래와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며, 한국족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대한민국 기록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선언이 될 것이다. 안동권씨대종보는 앞으로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함께하며, “성화보”를 통해 한국 기록문화의 뿌리와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다.

(글 권오철 기자(부정공파 36世, 한류문화苑 대표))

■ 기획 분석-권오철 부정공파 35世 한류문화원 대표

조선조 과거 급제 2위 ‘안동 권씨’로 본 권력의 지형학: 자연과 혈연이 빚어낸 성과인가, 시스템의 산물인가

조선 시대 문과 급제자 배출 순위에서 안동 권씨가 총 368명을 배출하며 전체 2위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현상은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넘어 당시 조선 사회의 복잡한 정치 지형과 구조적 불평등을 명확히 투영하는 거울이다. 1위를 차지한 전주 이씨(870명)가 왕족이라는 압도적인 특수 지위와 서울 근교 거주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수시 시험 등 제도적 특혜를 누리며 급제자 수를 불려 나갔던 것과 달리, 안동 권씨의 약진은 더욱 전략적이고 고도화된 중앙 진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서울 정착을 통한 중앙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

안동 권씨가 지방 명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2위의 급제자 배출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은 ‘조기 서울 정착’에 있다. 이들은 본관지인 안동에 안주하지 않고 추밀공과, 복야공과, 부정공과 순으로 가문 전체가 차례로 서울로 근거지를 옮기는 과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전략적 이주는 단순한 거주지 변경을 넘어, 교육 인프라와 관직으로 통하는 중앙 정치 무대의 핵심으로 직접 뛰어든 것을 의미한다. 일찍부터 수도권의 정치 주류에 편입된 이들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문과 급제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직결되었으며, 이는 당대 가문들이 중앙 정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생존 전략을 수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데이터로 보는 인구와 권력의 상관관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 시대 급제자 배출 상위 20개 가문을 살펴보면, 급제자 수와 현재 인구 규모 사이에는 흥미로운 불일치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전주 이씨(870명, 인구 2,631,643명)나 밀양 박씨(269명, 인구 3,103,942명)처럼 인구 규모가 클수록 급제자 수도 많은 경향을 보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다.

오히려 연안 이씨(255명, 인구 164,036명), 여흥 민씨(242명, 인구 137,314명), 풍양 조씨(188명, 인구 109,433명)와 같은 가문들은 현재 인구 대비 조선 시대에 월등히 높은 급제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인구학적 규모보다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과 가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앙 정계의 핵심 권력을 점유했음을 방증한다.

지역 편중과 과거 제도의 구조적 한계

조선 시대 과거 급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당시

교육과 권력의 지역적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전체 급제자 중 무려 43.1%(5,502명)가 서울 거주자였다는 사실은, 당시 서울 인구가 전국 대비 약 2.5%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상이 아닌 기형적인 분포이다. 여기에 서울을 포함한 전주, 안동, 충주, 상주, 청주 등 17개 지역 출신들이 전체 합격자의 약 65%를 독점하고 있었다는 점은 과거 시험이 본래의 취지인 전국적인 인재 선발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음을 방증한다.

조선 후기로 흐름을 추적하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정 가문의 집권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우대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김씨 가문의 집권기나 평안북도 지역을 우대했던 특정 시기의 정치적 상황은 곧 과거 시험 결과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전국 330개 군현 중 문과 급제자를 단 한 명이라도 배출한 곳이 절반 수준인 162곳에 불과했다는 통계는, 대다수 지역이 중앙 관직 진출에서 원천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조선 후기의 불균형한 사회상

결국 안동 권씨가 기록한 2위라는 수치는 조선 시대를 관통하며 이 가문이 중앙 정계 내에서 구축했던 막강한 영향력과 위상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단순히 안동 권씨의 우수성을 칭송하는 자료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데이터는 교육 자원과 관직 진출의 기회가 수도 서울과 일부 소수의 유력 가문에 집중되었던 조선 후기의 불균형하고 경직된 사회상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다. 과거 급제자 순위라는 수치는 단순히 실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가문의 거주 전략, 지역적 배경,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유착 관계가 긴밀하게 얽혀 만들어진 제도적 산물이었음을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주장에 대한 평가 ‘역사학자의 검토 의견’ 형식으로 재구성

역사학자의 검토 의견

‘조선조 과거 급제 2위 ‘안동 권씨’로 본 권력의 지형학’에 대한 검토

본고는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통계를 활용하여

안동 권씨의 정치적 위상과 중앙 진출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권력구조와 과거제도의 특성을 조망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단순한 성씨별 급제자 순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환경, 지역적 배경, 중앙 정치와의 관계 등을 함께 분석하여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특히 과거제도를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조건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최근 역사사회학적 연구 경향과도 일정 부분 맥을 같이한다.

다만 역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본고는 사실(史實)과 해석(解釋), 그리고 필자의 추론이 일부 혼재되어 있어 몇 가지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안동 권씨가 문과 급제자 368명을 배출하여 전국 2위를 차지하였다는 내용은 “국조문과방목”을 바탕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대체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과 급제자 수는 연구자의 집계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중북 급제자의 처리 여부, 증광시 포함 여부, 생원·진사시와의 구분 등에 따라 통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조문과방목”을 집계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라는 단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보다 정확하다.

전주 이씨가 왕족이라는 이유로 과거시험에서 제도적 특혜를 받았다는 표현도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문과는 원칙적으로 양반 신분에 게 개방되어 있었으며,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에서 직접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왕실과 가까운 정치적·사회적 환경, 수도권 교육 여건, 중앙 관료 네트워크, 음서 제도 등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였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제도적 특혜’보다는 ‘정치적·사회적 환경의 우위’ 또는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의 이점’이라는 표현이 보다 객관적이다.

안동 권씨의 서울 정착 과정을 설명한 부분 역시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그러나 추밀공과, 복야공과, 부정공과가 순차적으로 서울로 이주하였다는 내용은 “안동권씨세보”, “부정공파세보” 등 족보 자료와 관련 문헌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족보 기록에 따르면” 또는 “가문의 전승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역사학적 서술 원칙에 부합한다.

서울 정착이 과거 급제 증가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조선시대 서울은 성균관을 비롯한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과 사숙, 명망 있는 학자들의 강학 공간, 과거시험 정보와 중앙 인맥이 집중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수도 거주가 지방보다 유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 부분은 교육사나 대거제도 연구를 함께 인용하면 더욱 탄탄한 논거가 될 것이다.

한편 현재 성씨 인구와 조선시대 급제자 수를 비교한 분석은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해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오늘날의 성씨 인구는 조선시대의 인구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풍양 조씨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세도가문이었지만 현재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현대 인구 통계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이를 조선시대 권력 규모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서울 출신 급제자가 전체의 약 43.1%를 차지하였다는 통계와 서울 인구가 전국의 약 2~3% 수준이었다는 설명은 기존 연구와 대체로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시기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출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성무의 “한국 과거제도 연구”와 같은 대표적인 연구를 인용하면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문과 급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였다는 분석 역시 통계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지역별 급제자 분포를 표나 그래프로 함께 제시하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정치세력과 과거제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표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김씨 집권기”라는 표현은 안동 김씨, 경주 김씨, 광산 김씨 등 서로 다른 정치세력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동 김씨 세도정치기”처럼 시기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평안북도 출신 인재의 등용 역시 시대적 배경과 정책 변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일반화하기 보다는 특정 시기의 사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제도가 전국적 인재 선발 기능을 상실하였

다”는 표현 역시 다소 강한 평가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방 출신 급제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 인재 선발 기능이 점차 약화되었다” 또는 “수도권과 일부 명문이 중심으로 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는 표현이 역사학적으로 더욱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권력과의 유착”이라는 표현은 부패를 전제로 하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신중한 사용이 요구된다. 조선의 문과는 채제공의 사족제비 비교적 엄정하게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많으며, 실제 차이는 교육 기회, 혼맥, 중앙 인맥, 정치적 후원, 정보 접근성 등 사회적 자본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권력 네트워크”, “정치적 후원관계”,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역사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고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안동 권씨가 왕실 및 여러 명문가와 형성한 혼맥 관계를 함께 분석하면 중앙 정치 진출의 배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성균관과 수도 권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 급제율에 미친 영향을 교육사적 관점에서 검토하면 논거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셋째, 안동 지역의 서원과 유학 전통이 안동 권씨의 교육 기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함께 분석하면 지역성과 교육문화의 관계를 보다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음서 제도와 당파 정치가 관직 진출과 승진 과정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찰한다면 당시 권력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하면, 본고는 안동 권씨라는 사례를 통해 조선 후기 과거제도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과거 급제 통계를 사회사와 정치사, 교육사와 연결하여 해석하려는 접근은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일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학 용어로 수정하고, 통계와 사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며,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여 서술한다면 학술성과 설득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본고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명문가의 성장 전략을 분석한 역사사회학적 연구 또는 수준 높은 역사 교양 기획문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